

총장 선출제 논의 법인, 일방 결렬 선언

조인원 총장

“선출제 논의 대학이 해야”

공영일 이사장

“법인, 논의 과정에서 빠질 것”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지난 4일 재개된 차기 총장 선출 논의가 법인에 의해 다시 결렬 사태를 맞았다. 올해 11월 23일 조인원 총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난 13일 오후 4시에 열린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에서 법인이 돌연 결렬을 선언했다. 8월 7일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의 결렬 사태 이후 29일 간 열리지 않았던 실무회의가 지난 4일 재개된 지 10일 만이다. 법인과 대학평의위원회(대평의)의 재개 합의로 봉합됐던 양 측의 갈등은 이번 2차 결렬 사태로 다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법인 경희학원 공영일 이사장은 지난 13일 열린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에서 대평의 측에 법인은 앞으로 총장 선출제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날 공영일 이사장은 이사장 본인과 법인 조여원 상임이사, 조인원 총장이 지난 10일 총장 선출제 논의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조인원 총장이 총장 선출제 논의 과정은 대학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영일 이사장은 조인원 총장의 의견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실무회의에서 공 이사장은 “앞으로는 대학이 총장 선출제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며, 법인은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빠질 것을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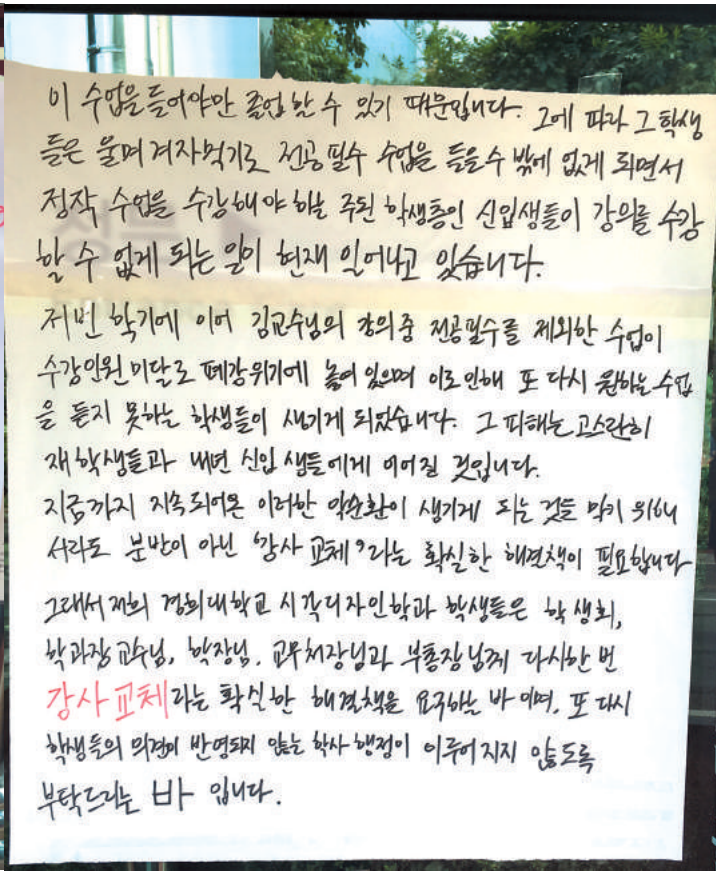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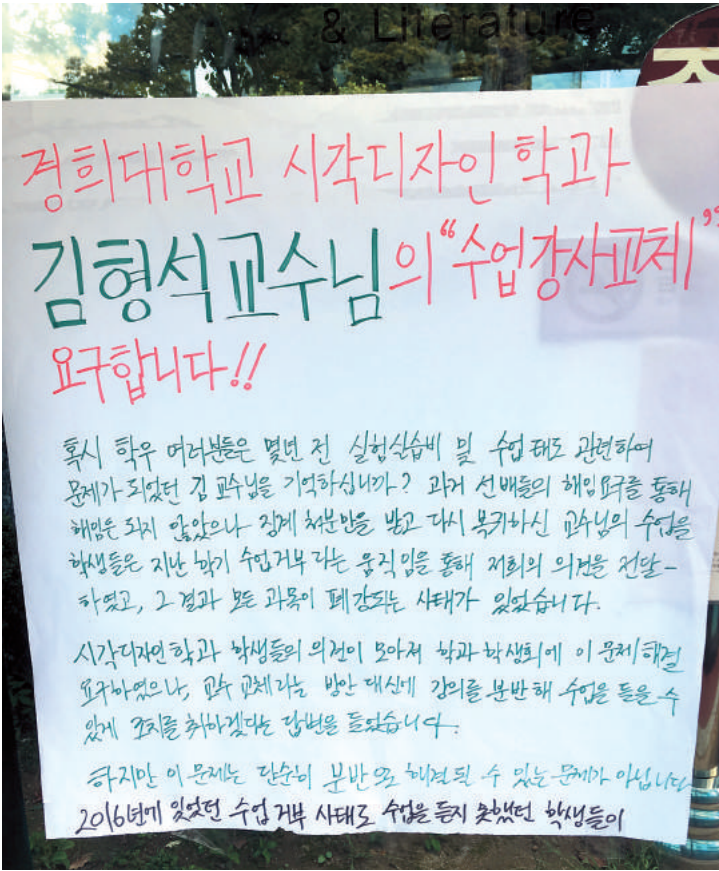
공영일 이사장의 결렬 선언으로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이어져 온 법인과 대평의 간 총장 선출제 논의는 결국 개정안 합의라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파국을 맞았다. 차기 총장을 선출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경희학원 정관 개정 권한은 법인에

있다. 또한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상태에서 법인이 돌연 결렬을 선언함에 따라 무책임한 횡포라는 규탄이 이어졌다.

대평의는 법인의 결렬 선언에 즉각 반발했다. 대평의는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그 동안 이사장은 법인소위원회와 대평의 양자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법인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며 “총장 선출제 개정안을 두고 직접 투표와 선임위원회 위원 비율 조정 등을 직접 제안한 자리에서 공영일 이사장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의 틀을 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대학을 혼란에 빠트리며, 구성원을 모독하는 심각한 일탈 행위”라며 “이사장의 돌출 발언에 대한 진위를 물었지만 이사장은 명확한 해명 없이 ‘미안하다, 유감이다’라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회의를 떠났다”고 밝혔다. 우리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공영일 이사장은 “아직 대학주보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학내 일각에선 법인의 시간 끌기 전략이 극에 달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진행됐던 총장 선출제 논의가, 법인의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의 결렬 선언으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은 법인이 지난 6일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에서 “오는 추석연휴 전에 새로운 총장 선출제 주요 형식을 확정하기 희망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장 선출제 실무회의의 2차 결렬 사태로 총장 선출제 개정안 논의는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21일로 유력하게 접어들었던 총장 선출제 개정 데드라인도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는다면 그 파장이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 수업 강사 교체 요구

실험실습비 600만원 ‘사취’ 논란 불거진 시디과 김형식 교수

학생들, 600만원 카메라 수업에 만저 본적도 없다 증언

수강거부 운동으로 강경 대응 3학기 동안 폐강된 과목만 6개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지난 4일, 국제캠퍼스(국제캠) 교내 버스정류장마다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김형식 교수님의 수업 강사 교체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 명의의 대자보는 “김형식 교수는 지난 2016년, 실험실습비 사취 및 강의 태도로 문제가 돼 수강생들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올해 이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공 기초 수업을 신청해 주된 수강 대상인 신입생은 강의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무과가 내놓은 강의 분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강사

교체라는 확실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형식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6년 수업 거부 운동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김형식 교수가 진행하는 전공기초 수업인 ‘시각디자인연구’ 강의에 대한 제보가 게시됐다. 교내에 대자보가 붙는 등 학생들의 지속적인 불만 표출이 줄을 이었다. 당시 ‘시각디자인연구’ 수업을 수강하던 학생 40여 명 중 4명을 제외한 학생들이 수업 거부 의사를 밝히고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2016년 12월에 정적처분을 받았고 2017년 1학기에 복직했다. 당시 학생회에 따르면 김 교수의 징계 사유는 실험실습비 사취, 폐강 위기 수업에 타 학과 학생 동원 등의 이유였다.

김 교수가 복직하자 학생들은 다시금 해임 서명운동을 하고 학부모와 동문에 해당사항을 알렸다. 학생들은 동문으로부터 2009년 이후로 누적된 자료를 받아 ‘시각디자인과 김형식 교수 해임 요구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 교수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2017학년도 2학기, 김형식 교수의 강의가 개설됐지만 학생들은 또 다시 수강 신청을 거부해 김 교수가 담당하던 전공 선택 두 과목이 폐강됐다. 2018학년도 1학기에는 전공 선택 두 과목이, 2학기에는 전공 선택과 전공 기초 과목이 각각 폐강됐다.

이따금 폐강으로 인해 졸업에 필요한 전공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자 시각디자인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생회, 교무처, 학과장, 학장이 참석한 긴급회의 끝에 나온 절충안은 ‘시각디자인연구’ 강의 분반이었다.

시각디자인학과 학생회 측은 “학생회는 강사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미 강의가 개설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분반은 전공 선택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 같은 교수의 수업을 여러 시간대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분반은 전공 기초 수업을 둘로 나눈 이례적인 경우

이며, 김 교수와 다른 교수가 담당하여 수업을 개설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김 교수의 강의 수강을 거부했고 교무처와의 재논의 끝에 다른 교수의 수강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재 김 교수의 수업을 신청했던 20여 명의 학생이 분반된 강의로 옮겨가 50명 정원 강의의 약 70명이 듣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50여 명이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것도 많은데 수강 거부 사태로 7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어 수업 환경이 열악하다”며 “교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교수와 학생 모두 힘들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학생회 측은 “김 교수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진행된 일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진행될 일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 시각디자인학과 학생회 측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김 교수와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총장 선출제 첫 학생 간담회 열려 … “소통할 수 있는 총장을 원한다”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대학평의위원회(대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총장 선출제를 선택한 이후 5개월여 만에 첫 학생 간담회가 이뤄졌다. 지난 11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엔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과대 학생 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1부에선, 서울캠 총학생회 송태현(경영학 2014) 회장이 실무회의가 처음 꾸려졌던 지난 6월부터 간담회 당시까지 주요 경과와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대평의와 법인이 제시한 두 개정안의

차이점과 구성원 참여에 대한 시각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2부에서 화두가 된 것은 대평의 만장일치 개정안이 제시한 구성원 투표의 골격이었다. 학생들은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선거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와 아울러 학생 투표권 비율 향상 등 구체적인 주장을 연신 쏟아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강다영(컨벤션경영학 2017) 씨는 “학생 직선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총장 선출제를 개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직선



제를 위해 또 다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낙현(자율전공학 2017) 씨는 “직선제는 모든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것에서 정

당성 충족은 가능하나, 특정 집단에 영합한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한편 차기 총장에게 중요할 역량과 비전에 대해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통’을 강조했다.

박원규(사학 2014) 씨는 “학생들과 제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양서(자율전공학 2018) 씨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차기 총장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호소했다.

이날 송 회장은 “차기 총장 선출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대표단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엄중한 목소리를 반드시 이번 제도에 녹여내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